

Robert Chisholm 박사, 사무엘 상하, 사무엘 하, 세션 22, 사무엘 하 12

© 2024 로버트 Chisholm 및 Ted Hildebrandt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이것은 22회, 사무엘하 12장입니다. 당신의 죄가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죄 많은 종과 대결하십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큰 죄를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간음한 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요압에게 우리아가 죽은 일을 네 눈에 악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했다. 그것이 전장에서 일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칼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삼킨다.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11장 끝에서 우리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음을 읽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12장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장의 제목을 '당신의 죄가 당신을 찾아낼 것이다'로 정했습니다. 당신의 죄가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그의 죄 많은 종과 대결하시다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죄 많은 종들을 징계하시지만 또한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읽기가 매우 고통스러울 이 특정 장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터널 끝에는 빛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그리고 다윗에 대한 가혹한 징계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1장에서 다윗은 보내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보낸 후 자신의 죄악된 흔적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는 왕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장 1절을 보면 다윗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이가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분은 다윗에 대한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이션이 하려는 일은 그냥 여기로 들어와서 데이빗, 당신은 유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는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는 David에게 그가 행한 끔찍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짧은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너무 냉담해서 처음에는 이야기에 자신을 등장시키지 않고 실제로 데이비드가 자신의 형벌을 선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은 말하자면 다윗의 목에 올가미를 조이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와서 작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이 왕국 어딘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인 실화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통치하고 사법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단지 Nathan이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뿌리를 두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에게 자신이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윗에게 말합니다.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부자에게는 온갖 종류의 가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산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외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키웠고 그것은 그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것은 그의 음식을 나눠주고, 그의 컵으로 마시고, 심지어 그의 품에 안겨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했던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니다. 그것은 우리아가 자기 아내에게 하기를 거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윗의 범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매우 미묘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딸, 붓 같았습니다.

밧세바의 이름인 밧세바를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어린 양은, 그는 이 양을 음식으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족 애완 동물입니다.

그것은 가족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고양이나 개 같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제겐 네 마리의 개가 있는데, 이 애완동물들은 정말로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감정적인 유대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여행자가 부자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후대를 베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기에게 온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 자기 양이나 소 중 한 마리를 잡아서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에게 이 가족이 모두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동물 중 하나로 식사를 쉽게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신에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았습니다.

그는 그 사람의 애완동물을 훔쳐서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의 애완 양을 훔쳐 죽인 다음 나그네와 함께 먹습니다. 당신도 Nathan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이것에 대해 상당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빗은 꽤 화가 났어요. 5절에서 다윗은 그 사람을 향하여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죽을 자격이 있습니다.

본문은 문자적으로 “죽음의 아들이 이런 일을 행한 자니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David는 이것이 중대한 범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그건 과장된 것 같아요. 과장된 것 같아요. 그는 이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판결을 내립니다.

그는 자기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런 일을 하였으니 그 양의 값을 네 배나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있듯이 다윗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특징짓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는 죽어 마땅할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나 전혀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다. 그는 냉담했습니다.

전혀 동정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네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 어디서 구해요? 그 사람이 그냥 꾸미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법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십계명 중 네 가지를 어겼지만 율법, 즉 율법의 전문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네 번 진술한 법적 배경의 근거는 출애굽기 22장 1절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 도살하거나 팔면,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부자가 행한 일이며, 그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읽습니다. 소에게는 소 다섯 마리를, 양에게는 양 네 마리를 돌려보내라.

그러므로 다윗은 법을 알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도둑맞았으므로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양 네 마리를 배상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방금 자신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David는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그 숫자를 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David는 네 아들을 잃을 것입니다. 이 장에서 익명의 아이는 이름을 모릅니다. 이 장에서는 그가 오랫동안 머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름을 주지 않습니다.

이 불륜 관계를 통해 태어난 아기는 죽을 것입니다. 그럼 그 아이가 1위인 거죠. 다음 장에는 다윗의 아들이 나오며, 이 시점에는 다윗이 가장 좋아하는 아들인 암논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그의 이복형 압살롬에게 살해당할 것입니다. 바로 두 아들입니다. 나중에 압살롬은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 하고 이스라엘에 반역을 선동하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압살롬은 전쟁에서 누구에 의해 죽게 될까요? 우리아를 죽이는 도구인 요압. 현재 세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를 익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A. Anonymous, Amnon, Absalom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David가 죽은 후에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할 때,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아도니야가 다윗의 아내 중 한 명과 동침하여 솔로몬의 나쁜 편에 섰고, 솔로몬은 그것을 왕위를 차지하려는 시도로 봅니다. 사실 아도니야는 왕이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솔로몬은 아도니야를 처형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범죄에 대한 결과, 즉 4배의 배상금은 그의 생애를 초월합니다. 이 네 아들은 모두 조기 사망했습니다. 마지막 세 가지는 폭력과 살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칼이 사람을 차례차례 쳐죽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네 배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은 부분적으로 다윗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어떻게 매우 가혹한 대가를 치렀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신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분은 다윗이 그 부자,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도록 만드셨고, 또한 다윗이 자신의 판결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나단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당신은 이야기 속의 부자입니다. 안보이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소한 나단의 이야기에 따르면 다윗이 그 공식을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선지자가 그에게 사무엘하 7장 5절과 8절에서 영원한 왕조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발표했을 때였습니다.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을 시행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말이 데이빗의 마음 속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다윗을 위해 행하신 일과 다윗이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었으니 이는 사울을 가리킨 것이니라 이런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충격을 주게 되고, 당신 주인의 아내들도 당신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사울의 아내들을 포함하여 사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윗은 그들을 그의 하렘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그 아내들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이 여기서 단지 그분의 주권을 언급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다윗에게 사울의 왕위와 말하자면 사울의 궁정과 그에 수반되는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을 지지하신다고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엔 이 경우에 주님은 문화적 모델에 따라 운영하실 뿐입니다. 나는 사울의 집과 그에 딸린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 문화에서는 여성과 아내를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너무 적었다면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이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욕심이 많나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목전에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래서 주님은 다윗이 주님의 말씀을 멸시했다고 비난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인격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1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정말로 나를 멸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업신여기니 곧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니라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 바자(baza)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주님께서 엘리를 질책하실 때 등장합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업신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기 다윗에게 좋은 징조가 아닌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의 이러한 관계는 전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계속하여 너희가 헛 사람 우리아를 칼로 죽였느니라. 그리고 여기서 진짜 기술적으로 말하고 싶다면 데이비드가 칼로 그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의 아내를 당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살인과 도둑질도 있고 그 전에 있었던 간음과 탐심도 있습니다. 당신은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당신은 여호와와 그의 눈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흥미로운 표현인데, 이전에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하에서 또 한 번 발생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하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사기로 돌아가 보면, 이 말이 죄 많은 이스라엘을 특징짓는 데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 그리고 사사기 시대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과의 이러한 상호텍스트적 연결은 다윗에게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다윗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 닮았습니다. 그는 죄 많은 사울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전혀 좋지 않습니다. 헛 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죽인 자도 칼로 쳐죽인 자도 이 표현이 앞서 사무엘상하서에 한번 나오느니라. 어딘지 맞춰봐? 사무엘상 22장 19절에는 사울의 명령에 따라 에돔 사람 도엑이 노베 주민들을 학살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과거의 나쁜 사람들처럼 보이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죄 많은 사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도엑과 사울처럼 생겼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울은 도엑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데이빗에게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그는 여기에서 정말로 죄 많은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네, 암몬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전쟁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셨습니다. 내 말은, 칼을 휘두르는 다윗 자신이 그것을 위해 그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형벌에는 항상 범죄에 맞는 형벌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것은 돌아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당신은 우리아를 죽이려고 암몬 사람들의 칼을 휘두르셨습니다.

이제 칼이 네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칼을 함부로 사용하면 네가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네 집에 칼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업신여기고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희의 아내로 삼았도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번역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주님의 원수들을 멸시하게 만든다거나 그와 비슷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당신이 나를 멸시했다는 뜻으로 가장 잘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체 읽기가 나오는 곳은 14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그렇듯이 조금 앞서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눈앞에서 너희 아내를 취하여 가까운 자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다윗의 죄에는 성적인 측면이 있었고 이제 그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다윗의 아내들을 데려다가 당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주실 것이며, 이 일의 성취는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범할 때 올 것입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도달하면 그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너는 이 일을 은밀히 행하였거니와 나는 이 일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행하리라

압살롬은 장막을 칠 것이고, 다윗의 후궁들은 그 장막 안에 있을 것이며, 압살롬은 들어가서 그들과 성관계를 가질 것이며, 마치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내가 새 왕이 되리라. 나는 아버지의 하렘을 물려받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일에는 언제나 무고한 사람들이 있고, 그 첩들은 부수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다윗과 압살롬이라는 타인의 세력에 의해 희생되는 무고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빗은 실제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는 13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말씀은 이전 선지자들에게도 몇 번이나 나타났습니다.

야간은 범죄하여 여리고에서 여호와의 전리품을 훔친 후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몇 번이나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15장에서는 사무엘이 여호와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자 사무엘이 그를 대면했습니다.

그러다가 26장에서는 다윗이 다윗과 마주했을 때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윗이 있는데, 아간과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David의 신용으로는 자신을 방어하려는 시도가 없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유명한 시편인 시편 51편을 썼습니다. 여기서 그는 단지 그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붓고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단의 반응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없애셨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Nathan은 여기서 용서를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완전한 처벌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가 방금 설명했던 모든 결과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당신의 경험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14절. 그러나 네가 이같이 함으로 여호와를 크게 멸시하였으니 네게 낳은 아들 곧 네게 낳은 아들이 죽으리라.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지만 이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구절입니다. 14절, 내 생각에는 너희가 주를 심히 멸시하였다고 번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당신이 주님의 적들로 하여금 완전한 경멸을 나타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완화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다른 곳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형태는 대상을 경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경멸적으로 대하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 추가로 우리가 갖게 된 것은 완곡하게 추가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은 다윗이 주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불해야 할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인 결과는 아닐 수도 있지만 결과는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전 텍스트의 메아리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아들들에 대한 서술자의 설명이 반복됩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제물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각한 비난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주님을 멸시하며 대하는 성경의 다른 곳으로 가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악한 원수가 되며 그렇게 한 것에 대해 엄중한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데이빗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용서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많은 사람들은 용서, 심지어 하나님의 용서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깨끗이 닦아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단지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실 뿐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내 죄를 고백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신다. 결과는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구약성경에 나오는 용서의 개념을 연구해 보면, 때때로 용서가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기의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의 범죄에 대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이 스스로 선언한 4중 지불은 그 자체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는 1순위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윗을 처형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에서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약속으로 돌아가면, 주님은 결코 사울처럼 다윗을 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의 막대기를 사용하여 그를 엄하게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래서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선언한 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십시오.

나단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치시매 그가 병들었더라. 주님께서 그 아이를 치셨습니다. 앞서 주님께서서는 해군, 사악한 해군, 어리석은 아비가일의 남편을 치셨습니다.

그를 기억해? 주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적어도 사울에 관해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서 사울을 치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울을 그 그림에서 제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치시는 자는 다윗의 자손이니라. 16절에서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는 금식하고 밤에는 굶은 베를 입고 땅에 누워 지냈습니다.

그 집의 장로들이 그 곁에 서서 그를 땅에서 일으키려고 하였더니 그가 거절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살려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데이비드가 4배의 값아야 할 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 아이가 첫 번째 할부금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Nathan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반드시 무조건적인 법령이라는 징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하지 못했고 주님께서 때때로 형벌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살았어도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듣지 않을 줄로 생각하여 그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이제 그 아이가 죽었다고

어떻게 알릴 수 있습니까? 그는 필사적인 행동, 어쩌면 자살 충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추론은 아이가 아플 때 이렇게 속상해하는데 아이가 실제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뒤집어지고 가장자리를 넘어갈 것이므로 우리는 그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관찰력이 매우 뛰어나서 그의 시종들이 서로 속삭이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는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죽었나요?”라고 물었다. 예, 그들은 그가 죽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데이빗은 그들을 놀라게 합니다.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씻고 로션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그의 마음이 이로 인해 큰 감동을 받았고 주님을 향한 태도 면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의 다른 곳에서 보게 될 일을 합니다. 이러한 심판이 임하면 그는 어떤 면에서는 매우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주님의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집으로 가서 그의 요청에 따라 음식을 대접했고 그는 먹었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묻되, 당신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할 수 있었다면 그는 그 사람들 중 몇몇과 꽤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이가 살아 있을 때에는 너희가 단식하고 우더니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일어나서 먹으라.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22절에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아직 살아 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나는 생각했다. 누가 알겠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이를 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그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말에는 그것이 확정되었다는 암시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avid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은 마음을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죽었으니 내가 왜 계속 단식해야 합니까? 이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단지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조건부로 선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명령했고 그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의미. 그러자 다윗은 “내가 그에게로 갈지라도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위로의 말씀으로 사용합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즉, 그는 천국에 있고 나는 언젠가 그와 함께 천국에 갈 것입니다.

나는 다윗이 내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데이빗의 말이 단순히 여기의 맥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나는 그에게 갈 것이다. 나는 죽을 거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나는 죽어서 죽은 자의 곳, 죽은 자들이 가는 땅으로 가겠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죽음에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David가 여기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산 자와 죽은 자 사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영역 사이의 여행은 엄밀히 말하면 일방통행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헌에서 죽은 자의 지하 세계는 실제로 돌아올 수 없는 땅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들어가는 사람 뒤에는 일곱 문이 닫혀서 그들이 산 자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2장에 나오는 요나의 추수감사절 노래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주님의 도구인 물고기에 의해 구원받은 후 자신이 어떻게 죽을 준비가 되었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뒤에서 문이 닫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견해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죽은 자의 땅으로 가더라도 그곳에서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엔 그게 데이빗이 말하는 전부인 것 같아. 그는 이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나는 결국 죽어서 그가 있는 곳으로 갈 것이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분명히 심란해할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 잠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가서 그녀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그의 이름은 화평의 어근에서 따왔느니라.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흥미롭습니다.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으므로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여디디야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다, 야훼의 사랑을 받는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폭력을 당할 때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아를 위반했고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정의로운 신이고 우리는 이것에 대한 결정을 깨끗하게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당신의 왕조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제디디아라고 짓고 싶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음 이야기에서 그를 솔로몬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문화, 즉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어린이가 하나 이상의 이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그분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평안함, 또한 여호와와 사랑을 받는 여드디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내가 여전히 당신과 당신의 왕조에 헌신하고 있음을 다윗에게 상기시키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사랑을 첨부하고 당신에게 헌신합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나의 사랑을 담았습니다. 한편, 이제 우리는 이야기가 중단된 곳으로 돌아갑니다. 요압이 암몬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다윗이 자신의 권력과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10장 끝에서부터 바로 이 지점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동안 요압은 암몬 자손의 랍바와 싸워 왕궁을 함락시켰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랍바를 쳤노라 하니

나는 그 물 공급원을 가져갔습니다. 이제 나머지 병력을 소집하여 성을 포위하고 함락시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도시를 차지하고 그 도시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이름을 따서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요압이 그것을 취하면 그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보여주기 위해 이름을 바꿀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가 정복자 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될 것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David에게 여기로 내려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당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다윗이 가장 잘하는 일, 즉 여호와께 순종하고 여호와와의 전쟁을 싸우는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다윗은 온 군대를 소집하여 랍바로 가서 그곳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암몬 자손에 대한 권위를 세웁니다. 그래서 David는 이 시점에서 다시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는 가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골리앗에게 했던 것처럼, 그일라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사무엘하 8장에서 아람 왕과 마찬가지로 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윗이 이 시점에서 성취한 일과 이전의 전성기 시절을 연결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전과 승리를 가져오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흠친 양에 대해 갚아야 할 할부금이 아직 세 번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수업에서 사무엘하 13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이것은 22회, 사무엘하 12장입니다. 당신의 죄가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